

주목할만한 신작영화
윤가는 감독작 '우리집'

가족 문제, 어른들 대신 나서다

"가족은 오랫동안 생각한 주제다. 나에게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다. 이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보고 싶는데 언제가 될지 몰랐다. '우리집'은 어린 친구들이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상처받는 이야기다. '우리집'에서는 아이들이 힘을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윤 감독 "가족, 오랫동안 생각한 주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인간심리 그려내



그녀가 생각하는 좋은 집은 어떤 것일까. "가족끼리 화목하게 다름 없이 지내야 좋은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하면서 아이들이 같이 있는 텐트가 진짜 집이라고 생각했다. 마음 속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가족 구성원이 겹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공간이 진짜 집이 아닐까 싶다."

향후 계획을 묻자 윤 감독은 "아이들 이야기를 평생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촬영을 하면서 새롭게 마음먹은 부분이 있다. 내가 아이일 때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서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다.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실질적인 고민이 담긴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다른 쪽에도 관심이 많다. 성인들 이야기도 함께 해나가고 싶다."

어린이배우 김나연, 김시아, 주예림, 안지호 등이 출연했다. '우리집' '용순' '홀' '살아남은 아이'를 만든 제작사 아토티와 '우리집'에 참여했던 스태프가 의기투합했다. 22일 개봉. /뉴시스



MBC TV '아육대' 10주년...

'모두의 아육대' 아래 끼·체력 마음껏 발산

MBC TV 추석 특집 '아이돌스타 선수권대회'가 10주년 축제를 연다. MBC '아육대' 제작진은 "많은 관심과 사랑 속에 2010년 아이돌 육상 선수권대회로 시작한 프로그램이 올해 10주년을 맞았다"라며 "이번 추석에는 '10TH FESTIVAL 모두의 아육대'라는 슬로건 아래에서 아이돌들이 끼, 체력, 매력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축제가 콘셉트"라고 밝혔다.

"2019 아육대"의 키워드를 10주년, 새 종목, 축제로 정했다. "10년간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아이돌들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제작진의 전언이다.

제작진은 "기존 인기 종목이었던 육상, 양궁, 승부차기를 기본 종목으로 하고 시대 흐름에 맞춘 새 종목을 추가했다"라며 "종목별 참여 아이돌 라인업을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최강 코치진을 꾸려 아이돌들을 제대로 지원했다"고 전했다. "특히 현장에서 종목과 종목 사이, 팬들을 재미있게 해줄 번외 경기도 준비하고 있다"라며 "축하 공연도 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2019 아육대"는 12일 고양 실내종합운동장에서 선수권대회를 치른다. 장소 제약이 있는 일부 종목은 계획에 따라 추가로 치러질 예정이다. /뉴시스

영화 '봉오동전투' 개봉 첫날 1위

누적관객은 35만2592명에 달해
2위는 '엑시트' 개봉 8일만에 400만

영화 '봉오동 전투'가 개봉과 동시에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봉오동 전투'는 7일 전국 1392개 상영관에서 5801회 상영해 33만4189명을 모으며 흥행성적 1위를 기록했다. 누적관객 35만2592명.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의 전투를 담은 작품이다. 영화 '용의자' (2013) '살인자의 기억법' (2017) 등을 연출한 원신연(50) 감독의 신작이다. 배우 유해진(49)·류준열(33)·조우진(40)이 주연했다.

'엑시트'가 2위다. 1315개관에서 6267회 상영돼 30만6694명이 봤다. 개봉 8일만에 400만 관객 고지를 밟았다. 누적관객 405만7190명.

이상근 감독의 데뷔작이다. 배우 조정석(39)과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윤아(임윤아·29)가 주연했다. 오락적인 재미와 재기발랄한 연출, 배우들의 호연이 관객들에게 통했다. 장년 배우 '용남' (조정석)과 대학동아리 후배 '의주' (임윤아)가 원인 모를 유독가스로 뒤덮인 도시를 탈출해야 하는 비상 상황을 그렸다.

3위는 '브링 더 소울 : 더 무비' (감독 박준수)다. 569개관에서 1960회 상영돼 10만19276명을 모았다. 누적관객 10만19734명.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세 번째 영화다. 작년 방탄소년단 월드투어 '러브 유에셀프'의 여정을 담았다. /뉴시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 24회 필봉마로굿축제

필봉筆峰 신명이 춤추는 땅

2019. 8.15 목 - 18 일 필봉문화촌

www.pilbong.co.kr

주최·주관: 한국문화재단, 필봉문화재단

후원: 전라북도, 임실군, 한국관광공사,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임실군농민회, 임실군농민회협의회, 임실군농민회, 임실군농민회, 임실군농민회, 임실군농민회, 임실군농민회

www.pilbong.co.kr